

팍팍한 살림에 보탬까...이색 중고거래 '눈길'

중고거래 사이트 품목 보니

“우리집 주차장 이용권입니다.”
광주 동구 충장동 주상복합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가 내놓은 주차권 금액은 한 달 4만원.
해당 주상복합에는 세대당 차량 한 대의 주차권이 주어지는데, 차가 없는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등록하는 대신 판매에 나선 것이다.
중장으로 임대 사실 주차장의 한 달 월권은 10만원 남짓으로, 별다른 주차 공간이 없는 탓에 주차권은 글을 올린 지 며칠 새 거래가 이뤄졌다.
A씨는 “주차권을 산 사람이 인근 회사에 다니고

오피스텔 주차권·2시간 입은 옷·절반 쓴 명품 향수 등 금불이 거래도 늘어...중고거래시장 4년새 6배 급성장

있어 최소 1년간 매달 4만원의 주차비용을 주기로 했다”며 “물가가 크게 올라 단 돈 한 푼이 아쉬워 주차권을 팔게 됐다. 휴대전화 요금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물가 역시 크게 치솟으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이용권을 판매해 ‘주차권 제테크’에 나서는 등 이색적인 물품들이 중고거래 시장에 나오고 있다. 급값 상승기 금 거래를 비롯해 현옷과 명품 등 다양한 매물이 거래되고 있다.
13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의 광주지역 중고거

래 물품들을 살펴본 결과, 자전거와 컴퓨터, 가구 등 대표적인 중고거래 품목 이외 이색적인 물품들이 등록돼 있었다.
우선 A씨처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등 주차권을 판매한다는 글은 물론, 주차권을 구한다는 글도 상당수 있었다. 심지어 백화점 발렛 주차권까지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불경기 속 급값 상승세에 금 거래도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당근마켓에서는 돌반지와 금 팔찌 등 금 중고거래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중고거래를 통해 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B씨는

“당근마켓에서 금을 사면 금은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파는 사람도 금은방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금값이 오를 것 같아 8개월 전부터 돈이 생기면 금 중고거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절반 정도 사용한 명품 향수나, 화장품, ‘2시간만 입은 옷’ 등 다양한 제품이 중고매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제가 9만5000원의 50m짜리 명품 향수를 8만원에 판매 중인 회원에게 판매 사유를 물어보니 “잘 사용하지도 않아 유통기한이 지나 버릴 바엔 중고로 판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
실제 경기불황에 명품 온라인 중고거래도 늘었다. 이날 온라인명품쇼핑플랫폼 트랜비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했다.
트랜비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들의 줄지는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명품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면서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중고시장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품도 중고거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상황 속에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1년 약 24조원으로 불었다”며 “경기침체로 중고거래 시장 성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연평균 15~20% 내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권 혁신제품 적극 발굴”

기재부·조달청·스카우터 등 민관협업 체계 가동

지역특화형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협업 체계가 가동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 12일 광주지방조달청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혁신제품 스카우터 호남권 거점플랫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기재부, 조달청,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조달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민간전문가인 혁신제품 스카우터 6명이 참여했다.
발족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미래차, 자율주행 등 호남권 특화산업의 혁신제품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공공구매와 연계해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 스카우터가 협업을 통해 호

남권의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등에 숨어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하면, 기재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돕기로 했다.
조영욱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이 호남권 특화산업의 성장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스카우터의 유기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스카우터 거점플랫폼을 통한 유망 혁신 기업의 발굴과 이를 통한 성장이 공공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가입 보이스피싱 보험 무료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마이데이터’ 최초 가입 고객에게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7월 21일까지이며,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가입하고 보험 제공에 필요한 단체보험 규약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험 기간 중 국내에서 본인 및 배우자, 만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기로 인해 부당한 예금 인출이 발생했거나 부당하게 신용카드가 사용됐을 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지난 3월 에이스 손해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했으며 보험료는 광주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광주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산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을 현금·계좌·투자·대출·소보·보험·연금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해 보여



주며, 거래내역과 계좌의 상세정보 조회는 물론, 다른 은행 계좌의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 기능까지 제공한다.
박종춘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이용고객들에게 사이버 금융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조선해양기자재공협 협약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13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협협동조합과 전남 조선산업 발전 및 기업 육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외 마케팅 지원 협력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해외 전시 참가 및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전남 중소·조선·해양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우선 전남도에 주소지가 있는 조선관

련 생산 및 설계분야 중소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도내 조선관련 기업들의 해외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 4월중 공모로 선정되는 기업은 전시를 위한 부스 임차, 항공료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인용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내 중소·조선·해양기업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해 지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벤츠 모바일 아카데미 16기 워크숍
기경력개발 워크숍을 실시했다.



하남농협 상호금융예수금 8000억 달성

하남농협(조합장 박상욱)은 13일 상호금융예수금 8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하남농협은 2021년 5월 예수금 7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한 이후 꾸준한 신용 사업성장을 통해 22개월만에 예수금 8000억원을 달성했다.
박상욱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와 임직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하남농협의 도

약을 위해 힘쓰겠다”며 “‘섬김경영’으로 조합원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과 함께 농업·농촌·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예수금 달성탑은 농·축협들의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사업 성장을 유도하고, 농·축협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에 마찬호 남양건설 대표

마찬호<사진> 남양건설(주) 대표이사가 제23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13일 열린 제65회 정기총회에서 마찬호 대표이사가 대표회원 만장일치로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찬호 당선인은 오는 6월 26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뒤 4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찬 해동건설(주) 대표이사가 감사로 선출됐으며, 공후식 제22대 회장은 참석 대표회원의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71년 광주일보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인문사회대 졸업생도 반도체 기업 취업한다

1년간 집중 교육...교육부, 참여 대학 모집

인문·사회계열 대학 졸업생들도 1년 이내로 반도체 분야 집중 교육을 받고 관련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4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을 받고 첨단 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에서 시범 운영한 뒤 미래차, 바이오 등 다른 분야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일반대 5개교, 전문대 5개교 등 총 10곳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업과 함께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공공연구실,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 대학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수강 신청 기준 완화, 학기별 이수 학점 제한 완화 등 학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는 기업과 대학 공동명의로 소단위 학위(마이크로 디그리) 이수증을 받는다.
참여기업 채용 약정 등 채용 우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1개 대학당 매년 100명~300명의 반도체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2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 시스템(K-PASS)에서 받는다.

교육부는 6월 중에 최종 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이 여름 계절학기부터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부트캠프’ 등으로 융복합 인재가 돼 첨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1.66(+11.02)
↑ 코스닥	894.25(+3.63)
↓ 금리(국고채 3년)	3.199(-0.034)
↓ 환율(USD)	1310.40(-15.30)